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B형) 분석

- 국어영역 유현주 (문법의 끝, 문학 개념의 끝, 두드림 모의고사 A형, B형 저자)

1. 출제 경향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모든 분야가 대부분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및 2014학년도 6월 모평과 큰 포맷은 유지하여 출제되었고, 주목할만한 점은 각각의 유형별 특징이 조금 더 강화되어 난이도가 올라간 것이다.** 공통 문제는 화법 4~5번, 작문 9~10번, 문법 14~15번이 연계되었고, 독서 영역에선 6월 모평에서 예술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9월 모평에선 사회 지문이 공통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문학은 동일하게 고전시가와 극/수필이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6월 모평에 비해 B형의 특징이 전 영역에서 조금씩 강화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 그러므로, 9월 모평의 수준에 맞춰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이전 예비수능과 6월 모평에 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화법은 ‘토론’, ‘협상’, ‘대화’ 지문으로 구성되었고, ‘대화’지문은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것은 6월 모평과 유사한 형태이고, **전반적으로 예비수능, 6월 모평의 출제 경향과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6월엔 ‘토의’가 출제되었고, 9월엔 ‘토론’이 출제되었다. 또한, 문제 3번에선 ‘협상’을 함께 연계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협상’도 출제 범위에 해당한다. 물론, 화법에 해당하는 화법의 유형 모두를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1~2번에 출제될 가능성은 이들이 제일 높다.

화법은 출제 유형에 대한 이해만 이루어지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아직 유형을 정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꼭 정리해두길 바란다. 의외로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화법, 작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문제 유형에 아직 적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반드시!! 꼭 꼭! 정리해두길.

작문은 ‘논설문- 개요의 작성’, ‘자료의 활용 방안’, ‘요약하기’, ‘글쓰기 전략’, ‘고쳐쓰기’로 구성되었고, ‘글쓰기 전략’과 ‘고쳐쓰기’ 문항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 또한 6월 모평과 유사한 형태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작문은 화작문 가운데 기존 수능과 유사한 지점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작문에서 자꾸 오답이 나오는 학생은 이전 기출 문제들도 꼭 포함하여 같이 풀어보길 권한다.

문법은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탐구’, ‘표준 발음의 적용’, ‘부정확한 문장의 수정’, ‘의문문의 종류와 기능 파악’,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안 탐구’, ‘중세 국어의 표기 이해’가 출제되었다. 6월 모평과 유사하게 문제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많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게끔 대부분 개념만 차용하여 새로운 문제 형태로 출제**되었다.

11번은 실제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인 듯 하지만, 여기에 ‘단어의 형성’을 결합하여 한 가지 문제에 여러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물어 문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으니, 철저히 분석해서 반드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2, 13, 14번은 예비수능과 6월 모평을 정확히 분석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만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중요한 것은 <보기>를 단순히 자료로 보아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념을 이해한 상황에서 <보기>에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아직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은 학생은 꼭,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15번은 B형의 문법2 중 ‘잘못된 문장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파트는 문법 2에 심화되어 출제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B형 학생들의 오답률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오답률 5위에 해당하여 **실제로, B형 학생들도 아직 심화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가 된다.** 15번과 같은 유형 역시 수능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해둬야 한다.**

독서는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독서로 구성되어 ‘기술’ 지문이 빠졌다. 이는 6월 모평에도 나타난 패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능에선 출제될 가능성이 아직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B형 학생들도 기술 지문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로, A형은 인문, 예술, 사회, 과학, 기술이 모두 출제되었다. 이것이 B형 학생들이 기술 지문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재, 오답률 1위 지문은 ‘과학’이다. 문제가 28, 29번으로 2개밖에 없지만, 모두 오답률 5위 안에 존재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지문이다. 더군다나 이 지문은 EBS 교재와 체감연계율도 굉장히 높은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의 차용에서 그치지 않았다. 교재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했고, 이것을 수능답게 심화할 내용은 심화하고 지문 구조를 정리하여 알맞게 구성하였다. 그러나, 오답률은 매우 높다. 이것은 교재에 나온 내용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매우 많이 연계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학생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문제는 연계될 수 없고, EBS 교재에 나왔던 문항의 내용 수준이 아닌 훨씬 어려운 수준으로 변형되었다.

물론, 결정적으로 난이도 차이에 가장 큰 관여를 한 것은 변형된 2단락의 내용 덕분이다. 실제로 28번과 29번은 모두 2단락의 내용에서 큰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출제 유형은 이미 작년 수능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작년에 과학 지문에서 EBS 교재 부분이 수록되었지만, 정작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는 변형되어 새롭게 추가된 ‘반테르발스 방정식’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 덧붙여진 부분이었다.

이것은 결국 특히 독서 영역의 학습은 ‘현상’보다 ‘본질’이 중요하단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다. 물론, 모든 영역이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독서 영역은 더욱 두드러진다. 수능에서도 EBS 체감연계율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디어만 차용하고 그것을 아예 새롭게 구성하여 처음보는 지문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교재를 외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아예 버리고, 남은 시간동안 수능 지문들 가운데 어려운 지문들을 분석하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건설적인 생각이다. 새로운 지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독서 영역의 지문의 구조나 문제의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면 수능날까지 수능 문제를 붙들고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부디, 꼭, 반드시.

문학은 고전시가와 희곡이 공통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시는 (가) 유치환의 생명의 서, (나) 신경림의 농무, 현대소설은 최인훈의 광장, 고전시가는 안민영의 매화사, 고전소설은 임춘의 국순전, 희곡은 이근삼의 원고지가 출제되었다.

문학은 EBS의 작품이 많이 연계되고 있다. 문항의 아이디어 또한 차용되었다고 하지만, 문항 유형은 기존 수능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EBS에 나온 작품을 잘 분석해 놓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작품 분석 위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고전시가는 6월엔 조선후기 작품인 ‘시집살이 노래’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B형에서도 고어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안민영의 매화사는 A형은 현대어역, B형은 고어 표기로 표기에 차이를 주었다. 역시 문제는 동일하다. 실제로 B형 학생들이 고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중세 국어 문법 전체를 다질 정도로 세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 EBS 교재에 나온 작품들 정도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읽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EBS 교재에 나온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은 주관적 해석이 존재하면 안 된다.** (작가는 주관적으로 글을 쓰겠지만, 해석하는 사람은 주관적일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러한 해석이 전국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땐 더욱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문 안에서 철저하게 답을 찾으려고 근거를 정확하게 대응시킬 것**을 권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관점 때문에 40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보기>를 근거로 작품을 분석하였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이니 이러한 부분에 신경써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2. 실제 연계 상황

B형 문항		EBS 교재	페이지 및 문항
1-3	화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14 / 21번
4-5	화법(공통)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15 / 21번
6	작문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p. 156-157 / 7번
7	작문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26-27 / 45번
8	작문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p. 206 / 6번
9-10	작문(공통)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p. 106 / 1, 2번
11	문법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p. 35 / 15번
12	문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36 / 61번
13	문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42 / 76번
14	문법(공통)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24 / p. 132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p. 93 / 2번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p. 130
15	문법(공통)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31-135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39 / 69번
16	문법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47 / 90번
17-20	독서(인문)	수능 특강 국어영역 국어B형	p. 166-167
21-23	독서(예술)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p. 103-105
24-27	독서(사회)[공통]	비연계	
28-29	독서(과학)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p. 91-92
30	독서(생활독서)	비연계	
31-33	고전시가[공통] (안민영, 매화사)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p. 114 / 226-227번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114 / 227번
34-37	고전소설 (임춘, 국순전)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p. 100-102
38-40	현대시 (유치환, 생명의 서 / 신경림, 농무)	수능 특강 국어영역 국어B형	p. 257-259
41-43	현대소설 (최인훈, 광장)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p. 126-128
44-45	희곡 (이근삼, 원고지)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184-187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p. 192-194